

송암교회 말씀묵상

산과 더불어

- 운곡 이규남

삶이 벅겁거든 산을 찾아 묵상하라.
인간이 싫어지거든 자연으로 대화하라.
내 인생 그 무게만큼 축복임을 감사하라.

분노와 미움으로 영혼이 흔들릴 때
자연의 질서에서 허망함을 깨달으라.
광음이 냉엄하거든 후회를 남길리아.

지식도 고갈하고 슬기도 마르거든
심오한 자연에서 귀와 눈을 열어보라.
섭리가 여의주 되어 지혜로 인도하리.

고독의 언어로써 자기를 다스리고
침묵의 언어로써 인생을 반추하라.
내 몫이 아직 비었거든 이웃으로 기꺼하라.

※ 雲谷 이규남 : 송암교회 원로장로

2022년 10월 10일(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찬송 425장

사도행전 4:1-12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
통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11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걷던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자와 사두개인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이
들이 못 걷던 자를 걷게 한 이일을 두고 따져 묻
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회복시키건
만 어떤 이는 이 일을 두고 무슨 권세로 이일을
했냐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예
수님을 못 박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통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시라고 증언했습니다. 시비를 거는 자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천하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이 오직
예수님 밖에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 질문 :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 기도 :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0월 11일(화)

우상숭배의 늪

찬송 322장

예레미야 10:1-16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
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5b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며 돌아서라고 말씀하
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
은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
과하다고 말입니다. 허수아비와 같이 모양만 있을
뿐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낮아짐과 수치
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와 복을 내
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온 만물을 만드시고, 만민
의 왕이 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가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의 헛
된 우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
합시다!

- 질문 : 내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나요?

- 기도 : 주님! 하나님 이외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의 중심에 서지 않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0월 12일(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찬송 569장

누가복음 20:45-21:4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46절)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가
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옷을 입을 때 손목에
경문을 차고 외투 가장자리에 털실을 꼬아 술을
달아 입었습니다. 경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두어 틈나는 대로 묵상하며 경건에 힘쓰기 위함
이었고 옷 술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행하도록 눈에 보이는 술을 달아 눈과 마음의 정
욕대로 살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
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경문이 커지고 옷 술을
길어졌지만 진정한 의미의 거룩함이 사라졌습니
다. 거룩이 사라지고 겉모양만 남은 ‘긴 옷’을 입
은 그들은 정욕대로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지도자
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된 길을 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들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 질문 : 잘못된 길을 가는 지도자를 위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 기도 : 모든 지도자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과 사랑으로 양 떼를
섬기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0월 13일(목)

장벽을 뛰어넘는 신앙

찬송 220장

고린도후서 8:8-15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함이라”(14절)

기근을 겪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마케도나의 성도들에게 헌금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날 힘든 교회를 위해 여유 있는 교회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은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금하고 후원하는 것이 세계 대부분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국경 밖은 여행을 위해 떠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남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런 인식 속에서 신앙은 마케도나와 예루살렘의 사이에 놓인 장벽을 허물어 주 안에 한 몸임을 느끼게 하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공유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신앙의 힘을 오늘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 질문 : 오늘날 나와 다른 신앙인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은 무엇인가요?

- 기도 : 주님, 주님 안에 한 몸 된 사실을 나눔과 실천으로 깨닫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0월 14일(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찬송 304장

에베소서 2:1-10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4,5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유를 좋아합니다. 자유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방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는 그 자유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두려워 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에서부터 오는 자유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죽은 삶을 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구원의 고백을 날마다 되새기길 원합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 질문 : 우리는 어떤 자유를 꿈꾸어 할까요?

- 기도 :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0월 15일(토)

무화과 환상?

찬송 408장

예레미야 24:5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당신 말씀을 떠나 살던 불신앙의 모습을 씻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포로로 끌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몇몇 인원들은 스스로 의로운 존재라고 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원들을 향해 “먹을 수 없어서 버려지는 나쁜 무화과같이 그 땅에서 멸절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반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어 예루살렘 백성이 당신께 돌아와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허물과 한계,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회복의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반면 평안할 지라도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 질문: 나쁜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 기도: 주님,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돌봄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

2022년 10월 16일(주일)

소망을 품는 사람들

찬송 488장

예레미야 32:1-1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15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왕은 궁중 시위대 뜰에 갇힌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일을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숙부 하나멜이 아나돗의 밭을 팔 것인데 그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된 이 판국에 땅을 사라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알았기에 순순히 따릅니다. 결국 절차를 따라 그 땅을 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고 하셨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시 집, 밭,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 질문 : 우리는 나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나요?

- 기도 :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주소서. 아멘